



### 농림부

#### 2008년 주요 농정시책 발표

농림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2008년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살펴보면, 지난해 시범 실시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된다. 농가로부터 농지, 축산 등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된다.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의 신개축·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2008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의 출생 이동신고, 귀표부착 의무가 부여되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려(伴侶)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제가 도입되고,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2008년 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http://www.maf.go.kr)) 참조.

#### 식품산업진흥법 공포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산업진흥법이 2007년 12월 27일자로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법의 내용은 입안예고된 내용과 큰 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식품산업진흥법을 통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식산업을 본격 지원, 육성하겠다는 농림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 등 우수식품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세부적으로 첨부했다.

한편 식품사업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등의 조항을 통해 품질인증 식품과 국내산 우수 농림수산물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닭·오리 AI 의심농장 검사, 현재까지 이상 없어

농림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07. 11~2008. 2) 동안 AI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농장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전국 오리농장 혈청검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농가에서 닭·오리가 죽거나 갑자기 알을 적게 낳는 등 AI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방역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오리의 경우 농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일선 방역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농장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AI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게 된다.

현재까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한 398 농가 12,195점 중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건은 총 25농가이며, 이 가운데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관리 대상이 되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 검출된 H7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일한 사례이며, 나머지 24건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방역관리 대상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종결되거나(5건), 바이러스 검사가 현재 진행 중(19건)에 있다.

## 보건복지부

### 2009년부터 닭고기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2009년부터 식당에서도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

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지난해 12월 21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질병진단센터 개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동물질병 진단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질병진단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질병진단업무가 동물별 또는 검사시료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



누어져 있어 축산농가에서 진단을 의뢰하는 첫 단계부터 겪어 왔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의뢰된 진단시료를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여 오던 것을 질병진단센터에서 모든 질병진단 시료 처리를 일원화하는 one-stop 진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종합적인 가축질병 진단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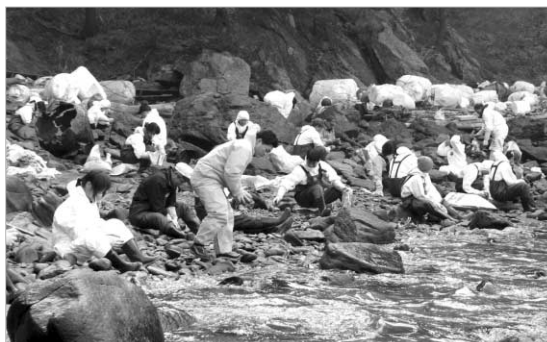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0일 가진 가축질병진단센터 현판식에서 주이석 센터장은 가축질병 진단 기술의 국가 표준화를 통해 중앙 질병진단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축산현장의 질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가축 질병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질병진단센터와 전국 지자체 병성감정 조직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가축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종돈, 종계 및 브랜드 우를 중심으로 축종별 질병 모니터링 농장을 선정하여 주기적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양축농가에 문제되는 질병을 사전에 파악하여 질병 예방 및 국가방역대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축질병진단을 위해

기존에 확립된 진단법을 적극 활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태안군에 기름제거 방제복 기증 및 자원봉사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태안지역 유출기름 제거용으로 써달라며 방제복 1,200벌을 태안군청에 기증했다.

아울러 검역원 직원 60여명이 태안지역 기름제거작업 2차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자원봉사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서 아직도 기름띠가 많이 남아있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해안에 기름제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 ‘디지털가축방역대책 상황실’ 마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시스템에서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가축방역대책 상황실로 이전했다.

최근 민원업무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행정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폭적인 검역원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도 본관 3층(36㎡)에서 본관 2층(43㎡)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발생농장 인근 지역에 대한 농가·축산시설물 등의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방역지역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원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 가축방역관련시스템과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FAMHS)의 지리정보가 포함된 농가정보를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소장 양창범)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200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심포지엄’을 학계, 업계, 관련단체 등 수의축산분야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최근 국제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추진되었다.

연자는 미국 농무성 가금질병연구소(SEPRIL) 소장인 Dr. David E. Swayne, 일본 동물위생연구소(NIAH)의 Dr. Shigeo Yamaguchi, 태국 동물위생연구소(NIAH)의 Dr. Arunee Chaisingh,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이상진 과장,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송창선 교수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이윤정 연구관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야생조류와 가금에서의 순환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 일본 및 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 우리나라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역학상황, 재래시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분포상황 및 우리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검역행정서비스 ISO9001 인증 획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검사 행정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검역검사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ISO9001' 인증은 본원의 동·축산물 검역검사 행정업무를 포함한 6개 지원(서울·인천·영남·중부·호남 및 제주지원) 검역검사 행정절차 표준화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서비스가 국제표준에 따라 고객 지향적으로 운영 중임을 널리 입증하고, 대내적으로는 고품질 동물 검역서비스 제공,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PRIDE 605 혁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관세청 전산망과 연계 운영중인 동·축산물 검역처리 전산시스템(KAQIS ; 카키스) 운영, 민원 해소를 위한 꾸준한 제도 개선노력과 PCRМ을 통한 고객관리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선택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개정 내용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면제 대상인 모든 날개 아이스크림 제품에까지 제조일 의무 표시가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부처 시행하며,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설변경이 불가피한 콘류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aqs.go.kr](http://www.nvraqs.go.kr))를 참조.

## 축산과학원

### 고양 긴꼬리닭, 일본 긴꼬리닭 아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고양 긴꼬리닭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파주 농가의 긴꼬리닭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 파주 긴꼬리닭과 고양 긴꼬리닭간의 유전적 유사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축산과학원은 2006년 9월 고양 긴꼬리닭으로부터 재래닭과 유사한 유전자를 검출하고 2007년 6월 고양 긴꼬리닭 3계통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하여 6월 11일 천

연기념물 지정을 예고했다.

이후 한 조류연구단체가 지난해 7월 “고양 긴꼬리닭은 일본 긴꼬리닭의 국내 사육종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긴꼬리닭을 국내에 들여와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긴꼬리닭과 유사한 품종으로 보임에 따라 경기도 파주의 긴꼬리닭과 유전적 동일성을 분석해 봐야한다”고 문화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26일 파주에 현지 실사를 나가 긴꼬리닭 6수를 채혈, 축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해 축산과학원의 조창연 연구사는 “파주의 긴꼬리닭은 B4유전자형이 1수, A8유전자형이 5수인데 B4유전자형은 한국 및 일본의 재래닭에서 많이 관찰되는 유전자형으로 우리나라 긴꼬리닭의 일부 계통에서도 관찰되며 A8 유전자형은 우리나라 재래닭 및 긴꼬리닭에는 없는 유전자형으로 일본의 동천홍 품종에서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따라서 파주 긴꼬리닭과 축산과학원이 발굴한 고양 긴꼬리닭간의 유전적 유사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고양 긴꼬리닭과 관련해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츠타키 교수는 지난해 11월 19일 “외모로 보아 고양에서 발견한 한국의 긴꼬리닭은 일본의 긴꼬리닭 계통인 장미계, 동천홍, 소국과 비교해 체형이 중후하고 벼슬도 크며, 특히 귀뿌리색 및 정강이색이 일본의 긴꼬리닭과 확연하게 달라 일본의 긴꼬리닭이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 축산기술종합지원단 연말 평가회 개최

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주시와의 축산기술협약 MOU 체결에

따른 축산기술종합지원단의 2007년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말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축산기술종합지원팀별로 2007년 추진현황 및 개선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축종별 농업인의 기술지원에 대한 반응 및 기술 수용현황, 앞으로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은 “이번 평가회를 계기로 축산과학원과 영주시가 향후 4년 동안 축산기술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영주시 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축종별 축산기술 표준화 방안과 신기술 보급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과학원은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모델을 확립코자 2007년 2월 27일 영주시와 축산기술협약 MOU를 체결하고 운영,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조사료 등 6개 축산기술종합지원팀을 구성해 분야별 기술지원을 추진해 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무실 이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최상호 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원들이 숙원하던 사무환경개선의 꿈이 이루어졌고, 주무부



처인 농림부와 가까워짐에 따라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의 방역위생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계기로 방역본부 제2의 도약기를 열어가자고 다짐했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교빌딩 7층
- 전화 : (031)436-8770~5
- 팩스 : (031)436-8776

## 가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HPAI 과잉보도 공동 대응기로

가금관련단체 및 업계는 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한국계육협회를 비롯 대한양계협회, 농협,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계조합, 치킨외식산업협회 등 가금관련단체들과 (주)하림, (주)마니커 등 육계 계열화업체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가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가금관련단체들은 지난 2003년과 2006년

에 발생한 HPAI로 인해 가금업계는 언론의 과잉보도로 피해가 가중됐다고 하며 가금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금관련단체들은 언론의 과잉보도는 소비자들에게 HP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며 HPAI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들에게 HPAI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HPAI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채용, 전세계 시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HPAI관련 이슈 발생시 대정부의 물론 대언론에 대한 대응 창구를 협의회로 일원화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 및 주요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 가금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HPAI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계육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 토종닭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한국양계조합, 하림, 마니커 등 각 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양계협회, 하림, 치킨외식산업협회 대표는 상근대표로 위촉했다.

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되 기존 단체들의 사무실 중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연맹

### 2007년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연맹(대표 정광모)은 2007년 3월 31

일 기준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장 중 휴업, 폐업, 영업정지 상태의 작업장을 제외한 소·돼지 도축장 80개소, 닭 도축장 36개소를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한 결과 상위 소·돼지 도축장 27곳, 닭 도축장 13곳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단체가 되어 9개 소비자단체 실무자, 수의과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 담당자들로 조를 구성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 도입을 위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도축장 미생물검사 결과(2007년 1월~6월의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준서 평가에 합산하여 110점을 총점으로 했다.

또 2007년도 평가점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식부산물 처리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가식부산물 처리에 관한 도축장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2006년도 평가시의 지적사항을 개선한 업소는 소·돼지 도축장 58개소(72.5%), 닭 도축장 25개소(69.4%)로서, 위생수준과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해 도축업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계류장의 형식적인 생체검사대, 급수·세척시설 부족, 검사관부족과 작업장의 벽, 바닥과의 도체접촉, 검사라인의 미흡, 예냉실 도체간격 부적합, HACCP 기준서 미흡, HACCP 교육미흡(17.5%), 형식적인 HACCP 기록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위등급 닭도축장은 총 13개소로 (주)농협목우촌, (주)동우, (주)디엠푸드, (주)마니커동두천, (주)신명, (주)울품, (주)우림인티그레이션, 정우식품(주), (주)체리부로, (주)플러스푸드, (주)하림, 한강CM(주), (주)해마로식품 등이다. 

〈2007년도 도계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 상위등급 도계장(13개소)

도계장 명(가나다 순)	도계장 소재지	대표자명
(주)농협목우촌	충북 음성	고윤희
(주)동우	전북 군산	정창영
(주)디엠푸드	경기 용인	이종진
(주)마니커동두천	경기 용인	한형석
(주)신명	전북 정읍	이재철
(주)울품	경북 상주	이동영
(주)우림인티그레이션	전북 김제	이재웅
정우식품(주)	경기 포천	이한철
(주)체리부로	충북 진천	김인식
(주)플러스푸드	경기 김포	심재국
(주)하림	전북 익산	이문용
한강CM(주)	경기 화성	홍응수
(주)해마로식품	충남 부여	엄종인

• 중위등급 도계장(11개소)

도계장 명(가나다 순)	도계장 소재지	대표자명
(주)씨에스코리아	충북 충주	이재현
성화식품(주)	충남 천안	이승준
(주)에스에스티푸드	충남 서산	김봉희
(주)매산	충남 당진	김종석
(주)키토랑	대구	조영래
(주)현진	강원 춘천	김준수
(주)유진	전남 여수	강연식
(주)육성	충남 보령	오배근
인제산업(주)	충북 제천	이문학
(주)청정계	경기 양주	장세평
(주)창만축산	충남 공주	조병철